

VC

Discovery



이달의 VC人 Zoom-In
HB인베스트먼트 안신영 대표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VC&PE시장 분석
VC 관련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현황



여름의 문턱에서

가로수 나뭇가지에 알알이 꽃망울이 맺히는가 싶더니
어느새 말간 잎사귀와 색색의 꽃잎으로 산록이 흠뻑
여름의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간밤에 내리는 비 소식이 부쩍 반가워진 이른 더위의 문턱,
어찌나 바쁘게 살아왔는지 벌써 1년의 절반이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최근에는 유독 큼직한 일들이 많아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바뀌어있다'는 말이 실로 피부에 와 닿는 나날이지요.
민족이 유례없는 평화를 목전에 둔 역사적 시점,
이 격동의 반 년간 여러분의 역사는 또 어떠셨나요?

바야흐로 곧 망종(芒種)입니다.
혹독한 겨울과 봄을 이겨내 자라준 보리를 수확하고,
새로 키울 벼는 씨앗을 뿌리는 바쁜 시기이지요.
옛말에 '보리는 망종 전에 베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해야 할 시기가 있다는 의미지요.
잘 여문 보리를 늦지 않게 수확하고 새 모종을 심듯
일의 마무리와 시작에 그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변을 살펴보는 중용의 절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무더운 피약별이 과실을 성숙하게 하고
거친 소나기가 마른 강물을 굽이치게 하지요.
지난 고난이 오늘의 당신을 빛나게 하였기를,
오늘도 변함없이 당신의 걸음을 응원합니다.
戊戌年 6月, 땀과 함께 영근 햇보리 알곡들과.

CONTENTS

Market Trend

- 04 4월 벤처투자 시장 동향
- 10 주요 LP 출자 계획 및 선정결과

Investment Insight

- 14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VC & PE시장 분석
- 18 이달의 VC人 Zoom-In
HB인베스트먼트 안신영 대표
- 22 VC 관련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현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24 법률 Q&A
 -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행사가액 조정절차 이행의 소 가부
 - 주주간 합의서의 활용

With Startup

- 26 중소벤처기업 지원 사업 운영 현황
투자협력·M&A
- 29 KVCA 소식
 - 2018 벤처캐피탈 사장단 연찬회
 - 신규 회원사 방문(한컴인베스트먼트)

KVCA & Members

- 30 협회장 동정
- 31 회원사 소식
- 33 연수원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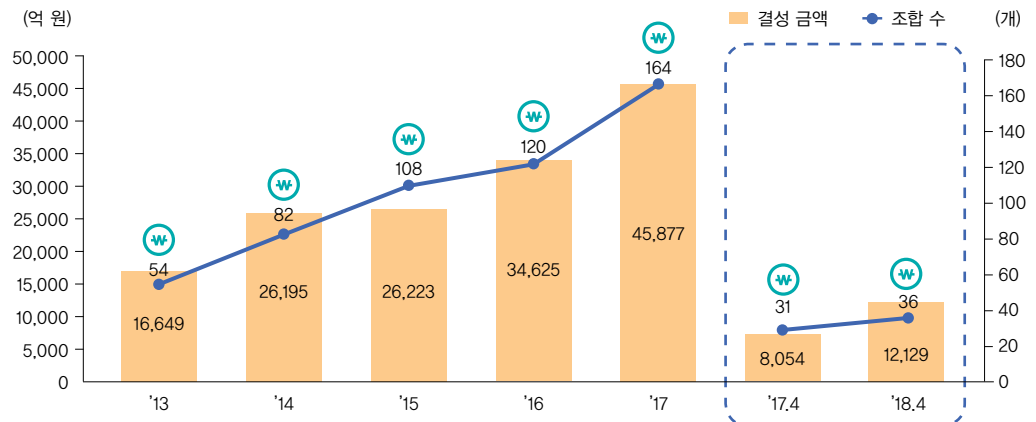
4월 벤처투자 시장 동향

- 2018년 4월에 10개 조합(창투조합 4개, KVF 6개)이 2,165억 원의 규모로 신규 결성
- 4월에는 총 289건(162개사)의 투자가 이루어 졌으며, 신규투자금액은 3,389억 원으로 전년 동월(1,958억 원) 대비 1,430억 원(73.0%) 증가
- 4월 회수는 장외 매각 및 상환을 통한 회수비중이 44.4%로 가장 높았으며, IPO를 통한 회수 비중이 37.5%를 차지

투자 재원

조합결성

- 금년 4월까지 36개 조합, 12,129억 원이 결성되었는데, 이는 전년 동기(31개 조합, 8,054억 원) 대비 신규 결성 조합 수는 5개(16.1%) 증가, 결성금액은 4,075억 원(50.6%) 증가한 수치이다.



연도별 신규 결성조합 출자자 비중

- 금년 4월까지 신규 결성된 투자조합의 출자자 비중은 금융기관이 35.0%로 가장 높았으며, 정책기관 23.1%, 연금·공제회 23.0%, 벤처캐피탈이 8.4% 등의 순이다.
- 특히 벤처펀드 출자자 중 정부(한국모태 포함), 산은, 성장사다리를 제외한 민간출자자 비중이 65.4%로 전년 동기(59.0%) 대비 6.4%p 증가한 수치이다.

(단위 : %)

조합원유형	2013	2014	2015	2016	2017	2017.4	2018.4
정책기관 (모태)	33.0	16.5	29.8	27.1	30.9	9.2	23.1
	31.8	14.3	23.2	20.1	25.2	1.3	17.5
금융기관 (산은)	27.0	22.7	25.0	24.0	24.5	40.7	35.0
	16.4	12.2	4.3	6.4	5.2	26.1	10.7
연금/공제회	8.5	20.2	4.4	9.9	9.5	7.2	23.0
벤처캐피탈	13.1	11.4	12.0	13.4	11.0	11.9	8.4
일반법인	14.4	9.7	13.7	14.5	12.4	15.9	6.8
기타단체 (성장사다리)	0.9	13.0	9.7	8.0	8.9	10.1	1.7
	0.0	11.4	8.4	4.2	3.2	5.7	0.8
개인	1.8	3.3	3.5	2.1	1.8	1.3	1.3
외국인	1.3	3.2	2.0	1.0	1.0	3.7	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월 신규 결성조합 주요 현황

- 2018년 4월에 10개가 신규로 결성되었으며, 이 중 Secondary 펀드 3개, 바이오 펀드 2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 결성금액별로는 티에스인베스트먼트의 '티에스 10호 세컨더리 투자조합'이 800억 원으로 가장 컸고,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의 'IMM 세컨더리 벤처펀드 제3호', 캐피탈원의 '캐피탈원 조선업 구조개선 투자조합'이 각각 660억 원, 200억 원으로 결성되었다.

티에스인베스트먼트

티에스인베스트먼트가 한국산업은행 등이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한 800억 원 규모의 세컨더리 펀드를 결성하였다. 해당 펀드는 티에스인베스트먼트가 올해 처음 결성한 펀드이며, 한국모태펀드의 1차 정시 출자 사업 운용사로 선정되어 추가적으로 신규 펀드를 결성할 예정이다.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가 660억 원 규모의 세컨더리 펀드를 결성하였다. 현재 총 4개의 세컨더리 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2개는 모태출자 없이 세컨더리 주목적으로 결성한 펀드이다.

캐피탈원

캐피탈원이 모태펀드 17년 4차 정시 출자사업의 운용사로 선정되어 2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하였다. 해당 펀드는 조선업 구조개선 및 조선업 관련 매출 비중이 30% 이상인 제조·수리업체 등에 출자약정의 60%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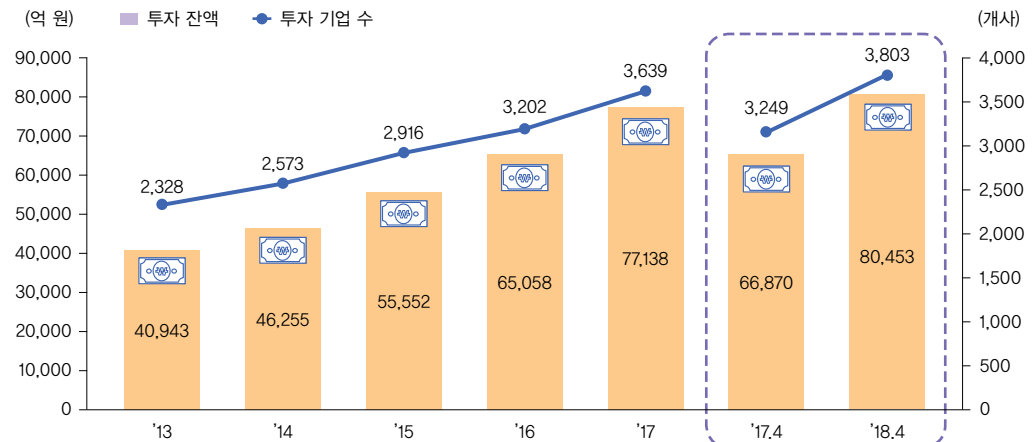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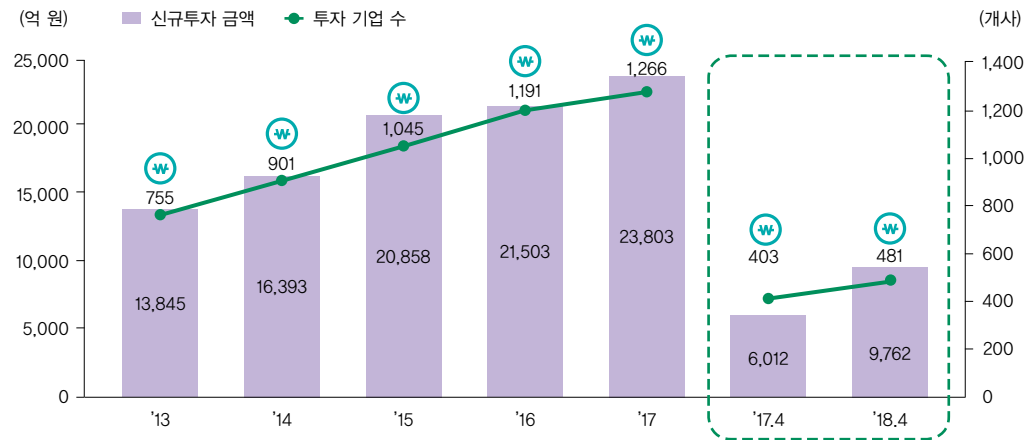
(단위 : 억 원)

구분	GP명	조합명	결성금액	목적구분	투자분야
창투자조합	원베스트벤처투자	베스트바이오3호투자조합	60	일반	바이오
창투자조합	우노인베스트먼트	UNOi 블록버스터 디스커버리 벤처펀드 1호	150	일반	중소/벤처일반
창투자조합	에스제이벤처인베스트먼트	에스제이-올트라브이 1호 투자조합	29	일반	중소/벤처일반
창투자조합	원베스트벤처투자	베스트바이오4호투자조합	20	일반	바이오
KVF	더웰스인베스트먼트	더웰스인베스트먼트 제1호 한국벤처투자조합	31	M&A	중소/벤처일반
KVF	티에스인베스트먼트	티에스 10호 세컨더리 투자조합	800	Secondary	중소/벤처일반
KVF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IMM 세컨더리 벤처펀드 제3호	660	Secondary	중소/벤처일반
KVF	케이비인베스트먼트	KB Pre IPO 세컨더리 투자조합 2호	50	Secondary	중소/벤처일반
KVF	캐피탈원	캐피탈원 조선업 구조개선 투자조합	200	일반	중소/벤처일반

전체 신규 투자 및 투자 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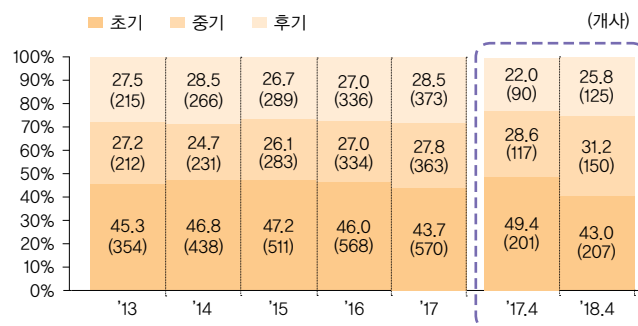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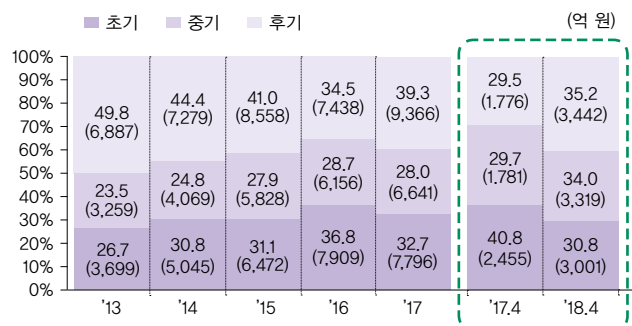
신규 투자

- 금년 4월까지 신규투자는 9,762억 원으로 전년 동기(6,012억 원)보다 62.4% 증가하였고, 투자업체수는 481개사로 전년 동기(403개사)보다 19.4% 증가하였다.
- 4월에는 I-YUNO ASIA가 243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가장 많은 투자를 받았으며, 다음으로 퍼스트바이오 테라퓨틱스, Funding Asia Group, 파맵신, 비씨월드헬스케어, 엔캠, 인투셀, 마켓디자이너스, 메드팩토 등의 순서로 투자를 받았다.
- 투자잔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금년 4월까지 3,803개 업체에 8조 453억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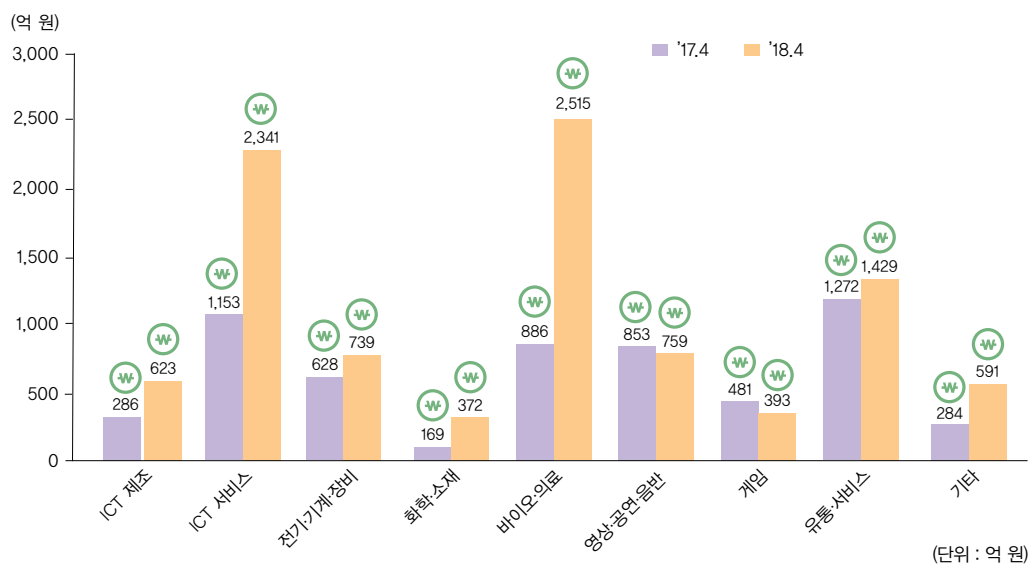
업력별 신규 투자

- 금년 4월까지 후기기업 투자비중이 35.2%로 가장 컸으며, 중기기업 34.0%, 초기기업 30.8% 순으로 투자되었다.



업종별 신규 투자

- 업종별로는 바이오/의료 2,515억 원, ICT서비스 2,341억 원, 유통/서비스 1,429억 원, 영상/공연/음반이 759억 원 순으로 신규투자 되었으며, 바이오/의료 분야가 전년 동기 대비 가장 큰 폭(1,629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영상/공연/음반 분야는 94억 원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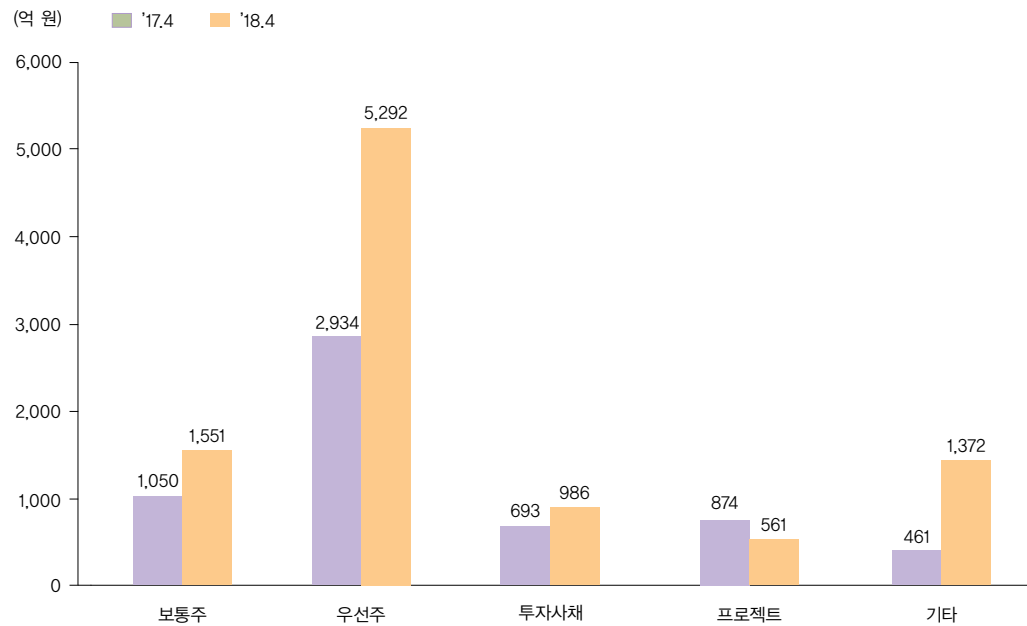


(단위 : 억 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7.4	2018.4
ICT제조	2,955	1,951	1,463	959	1,566	286	623
ICT서비스	1,553	1,913	4,019	4,062	5,159	1,153	2,341
전기·기계·장비	2,297	1,560	1,620	2,125	2,407	628	739
화학·소재	989	827	1,486	1,502	1,270	169	372
바이오·의료	1,463	2,928	3,170	4,686	3,788	886	2,515
영상·공연·음반	1,963	2,790	2,706	2,678	2,874	853	759
게임	940	1,762	1,683	1,427	1,269	481	393
유통·서비스	1,092	2,046	3,043	2,494	4,187	1,272	1,429
기타	593	616	1,668	1,570	1,283	284	591
합계	13,845	16,393	20,858	21,503	23,803	6,012	9,762

유형별·지역별 신규 투자

- 투자유형별로는 우선주로 투자한 금액이 5,292억 원으로 전체투자의 5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보통주가 1,551억 원으로 15.9%였다. 프로젝트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313억 원 감소하였다.
- 보통주 투자가 전년 동기(17.5%) 대비 1.6%p 감소한 15.9%였고, 우선주 투자는 54.2%로 전년 동기(48.8%) 대비 5.4%p 증가하였다. 프로젝트 투자 비중은 5.7%로 전년 동기(14.5%) 대비 8.8%p 감소하였다.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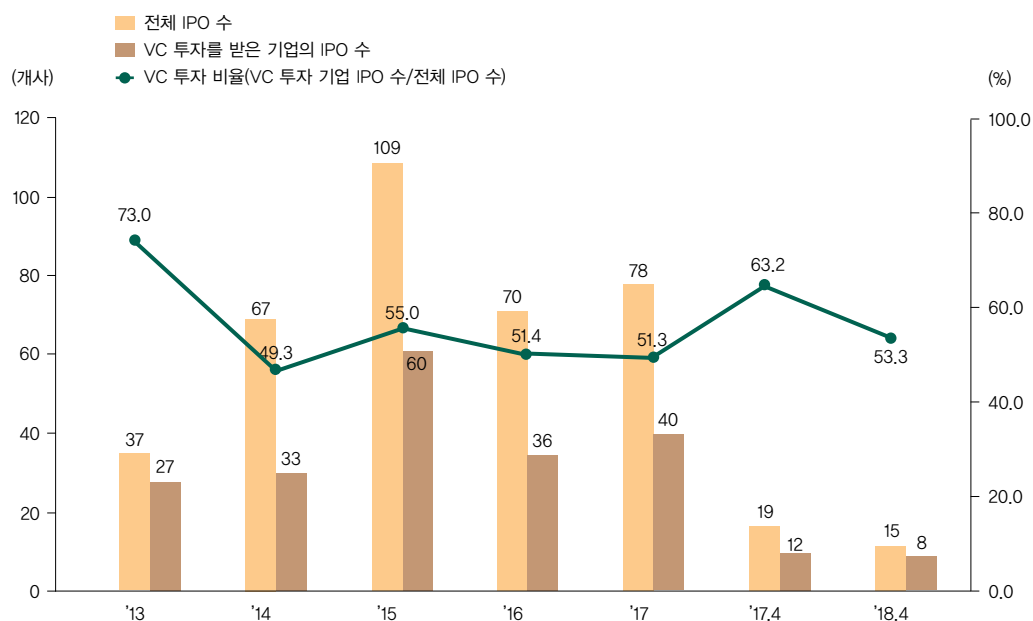
	2013	2014	2015	2016	2017	2017.4	2018.4
보통주	3,425	3,297	4,226	4,437	5,458	1,050	1,551
우선주	5,038	6,103	8,786	10,398	10,529	2,934	5,292
투자사채	3,049	3,276	3,272	2,823	2,881	693	986
프로젝트	1,944	2,681	2,471	2,427	2,749	874	561
기타	389	1,036	2,103	1,418	2,186	461	1,372
합 계	13,845	16,393	20,858	21,503	23,803	6,012	9,762

- 지역별로는 서울(46.7%)을 비롯한 수도권(69.4%) 소재기업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지방은 9.1%, 5대 광역시는 8.1% 등의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것으로 집계되었다.

투자 회수

유형별 회수

- 4월까지 회수원금은 3,901억 원이며, 그 중 장외매각 및 상환을 통한 회수비중이 46.8%로 가장 높았고, IPO가 31.0%, 프로젝트가 14.7% 순이었다.
- 특히, 4월은 주식 투자의 회수비중이 높았는데, 182건의 거래를 통해 521억 원을 회수하였으며, 이 중 주식 매각을 통한 회수가 259억 원(49.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 4월에는 코스닥시장에 2개사(대신밸런스제3호기업인수목적, 제이티씨)가 상장되었으며, 이중 대신밸런스제3호기업인수목적에 VC가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 자료원 : 한국거래소

(단위 : 억 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7.4	2018.4
IPO	1,072	1,411	2,784	2,817	2,307	370	1,207
M&A	22	163	150	329	324	104	146
프로젝트	1,613	1,639	1,605	1,924	1,348	419	573
장외매각 및 상환	주식	2,363	3,080	3,724	3,853	790	1,531
	채권	1,025	1,311	1,614	1,030	258	298
기타	736	217	342	476	389	156	146
합 계	6,831	7,821	10,219	10,315	9,251	2,097	3,901

주요 LP 출자 계획 및 선정결과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는 지난 5월 8일에는 1차 정시 출자사업 선정결과를, 이어 5월 18일에는 5월 출자사업 접수 현황을 발표하였다. 먼저 1차 정시 출자사업의 경우, 접수되었던 82개 조합 중 총 34개 조합에 대하여 4,930억 원의 출자를 확약하였다. 이들 선정된 운용사는 8월초까지 조합결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5월 출자사업에는 창업초기, 혁신성장, 소셜임팩트, IP, 미래환경산업, 민간제안 분야 등에 총 26개 조합이 3,414억 원을 요청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모태펀드는 혁신모험 계정에 대한 추가 출자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5월 24일 공고하였으며 6월 20일까지 제안서 접수를 받고 있다. 이상 출자사업 선정 결과 등의 세부적인 현황은 다음 페이지의 각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태펀드 혁신모험 계정 추가 출자사업 공고 안내

출자 규모 및 출자 대상	
출자 규모	총 2,800억 이내
출자 계정	혁신모험 계정 - 출자예정액 : 총 2,800억 원 (창업초기 1,680억원, 혁신성장 1,120억 원) - 결성목표액 : 총 5,600억 원 (창업초기 2,800억원, 혁신성장 2,800억 원)
투자기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또는 창업-벤처 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여성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KVF)
주요 일정	접수기간 : 2018. 6. 20 14시 까지 펀드 결성 완료 : 최종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 선정 결과

(단위 : 억 원)

계정	출자분야	최소 결성규모	모태 출자액	신청회사명
혁신 모형	창업초기A	2,250	1,335	(주)디티앤인베스트먼트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주)
				씨케이디창업투자(주)
				BS벤처파트너스
				컴퍼니케이파트너스(주)
				하나금융투자(주)
				마그나인베스트먼트(주)
				어니스트벤처스(유)
				인터밸류파트너스(주)
	창업초기B	470	270	(주)BSK인베스트먼트
				(주)마젤란기술투자
				뮤렉스파트너스(유)
중진	혁신성장	2,200	880	케이브릿지인베스트먼트(유)
				(주)코나인베스트먼트
				(주)티에스인베스트먼트
				(주)메디치인베스트먼트
	민간제안	1,310	450	KB인베스트먼트(주)
				포스코기술투자(주)
				케이런벤처스(유)
				플래티넘기술투자(주)
	소셜임팩트A	450	360	인사이트에퀴티파트너스(유)
				보광창업투자(주)
				(주)엘로우독
				(주)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
문화	엔젤세컨더리	222.5	140	코메스인베스트먼트(주)
				어센도벤처스(유)
				여성기업
				델타인베스트먼트(유)
	애니메이션 · 캐릭터	300	210	(주)대교인베스트먼트
				대성창업투자(주)
				일자리창출
				KTBN네트워크(주)
	해외연계	250	150	유니온투자파트너스(주)
				가치평가연계
				100
				60
특허	공공특허사업화	200	100	캐피탈원(주)
				더웰스인베스트먼트(주)
				중진특허협력
				신성장특허기술사업화
	보건	300	180	180
				100
				100
				100
	스포츠	170	100	시너지아이비투자(주)
				(주)이수창업투자
				AJ캐피탈파트너스(주)
				중진
과기 정통	사회적기업	108	75	포스코기술투자(주)
				과기정통
				융합콘텐츠창업초기
				150
	계	9,360.5	4,930	인라이트벤처스(유)

모태펀드 출자사업(5월) 접수 현황

(단위 : 억 원)

계정	출자분야	결성예정액	출자요청액	신청회사명
혁신 모험	창업초기	375	225	(주)대교인베스트먼트
				아이디벤처스(주)
				동훈인베스트먼트(주)
	혁신성장	700	200	뉴레이크얼라이언스매니지먼트(주)
중진	민간제한	3,107	1,010	현대기술투자(주)
				케이넷투자파트너스(유)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주)
				수림창업투자(주)
				프리미어파트너스(유)
				마이다스동아인베스트먼트(주)
				대덕벤처파트너스(유)
				(주)에쓰비인베스트먼트
				한화투자증권(주)
				미래에셋벤처투자(주)
	소셜임팩트A	1,725	1,380	더웰스인베스트먼트(주)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주)
				인사이트에퀴티파트너스(유)
				(주)이앤벤처파트너스
				마이다스동아인베스트먼트(주)
				지비보스톤창업투자(주)
				(주)세종벤처파트너스
				미시간벤처캐피탈(주)
특허	IP직접투자	325	180	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주)
	해외IP수익화	600	289	아이디벤처스(주)
				KB인베스트먼트(주)
환경	미래환경산업	220	130	(주)킹고투자파트너스
계		7,052	3,414	

한국성장금융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코스닥 Scale-up 펀드』 위탁운용사 제안서 접수가 지난 5월 31일 마감되었다. 2개 운용사에 대해 총 1,000억 원 이내 규모를 출자할 예정인 본 공고의 선정 운용사는 스케일업 하려는 저평가 코스닥 상장기업, 기술성장기업 상장 특례 혹은 테슬라 요건으로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에 약정총액 50% 이상을 투자하게 된다. 최종선정결과는 6월 말 한국성장금융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한편, 『반도체 성장펀드(3차)』 운용사 선정 계획도 5월 31일 공고되어 12월 31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위탁운용금액은 총 175억원으로 펀드 투자 형태는 블라인드펀드, 프로젝트펀드 등 자유 제안이다.

산업은행·산업기술진흥원(KIAT)

산업은행과 산업기술진흥원(KIAT)은 500억 규모의 '신산업 외국인투자촉진펀드'를 조성한다. 각각 100억원을 출자하고 나머지 300억원은 운용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며, 운용사업자는 창투사 등으로 경험과 역량을 감안해 선정된다. 펀드의 30%(150억원)는 외자유치 조건부로 투자되며, 한 기업이 10억원의 외자를 유치할 경우 같은 규모로 외촉펀드의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출자 공고의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출자 규모 및 출자 대상	
출자 규모	총 200억 이내
선정 운용사 수	2개사 이내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500억 원 이상 펀드의 운용사 1개 또는 250억 이상 펀드 2개 선정 예정
투자지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지구(PEF) 또는 창업·벤처 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지구 「여성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KVF)
주요 일정	접수기간 : 2018. 5. 25 ~ 2018. 6. 15 최종선정일 : 2018. 7월 중 펀드 결성 완료 : 2018. 10월

행정공제회

행정공제회는 해외 Blind Private Equity Fund 선정계획을 공고하였다. 총 USD 150M 이내에서 출자할 예정이며, 선정평가는 투자전략별 Buyout&Growth, Secondary, Coinvestment로 나누어 6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은 1차 수시 출자사업 위탁운용사를 선정하기 위해 5월 30일까지 제안서를 받았으며 심사를 진행한 뒤 출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정기 출자사업의 농림축산식품업 분야에는 디티앤인베스트먼트NH농협캐피탈(Co-GP)이 GP로 선정되었으며 농금원이 90억 원을 출자해 총 2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수산업 분야는 KB증권·KB인베스트먼트(Co-GP)가 100억 원을 출자 받아 총 150억원의 펀드를 결성하게 된다. 셋째로 농식품벤처 분야의 단독 운용사인 미시간벤처캐피탈에 농식품모태펀드 출자액은 100억 원으로 펀드 결성총액은 125억 원이다. 마지막으로 지역특성화(경기도) 분야는 AJ캐피탈파트너스·이수창업투자(Co-GP)가 40억 원의 앵커 출자를 받아 100억원의 펀드를 만들며 지자체인 경기도도 30억원을 매칭할 예정이다.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VC & PE 시장 분석

싱가포르 벤처캐피탈 Centos Ventures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동남아 벤처투자액이 4년새 15배나 급성장하여 2017년 7억 6,70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인도 벤처투자시장도 활황세를 이어가고 있다. 벤처투자액이 몰림으로써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를 넘어선 유니콘 기업도 속속 탄생하고 있으며, 빠르게 유입되는 자금들은 스타트업들이 인도와 동남아 시장에서 사업 경쟁력을 확보할 든든한 영양소가 되어주고 있다. 국내 벤처캐피탈 또한 낮아진 해외투자장벽에 힘입어 적극적으로 유망 투자처를 탐색하고 있다. 인터넷, 모바일 등 분야에서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이 큰 신생 기업들이 속속 등장 중인 인도와 동남아 시장진출에 그 활로가 넓어질 예정이다. 국내 벤처캐피탈이 크게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현 시장의 IT사업 중심의 유망 산업별 동향과 VC&PE의 자금유입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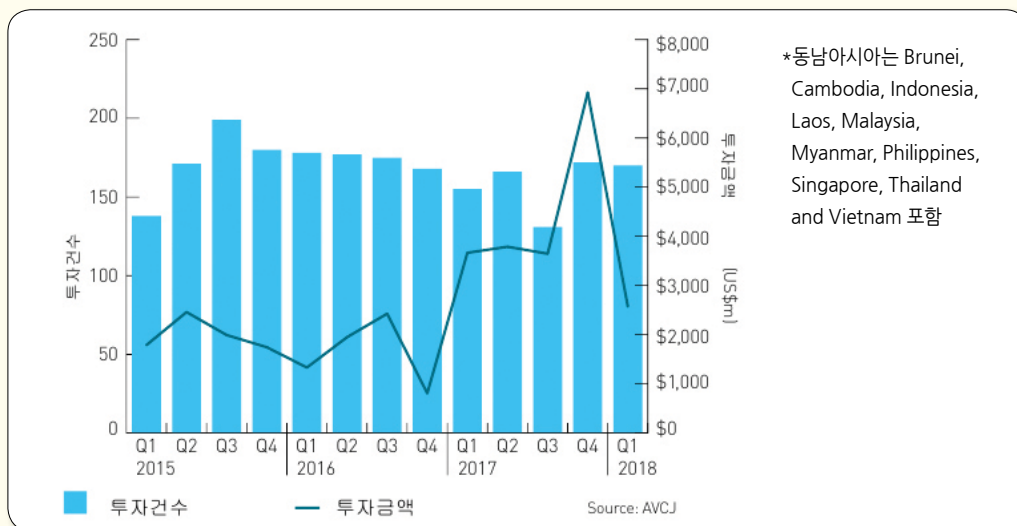
민간 투자자들이 신흥 시장에서 창업과 혁신성장의 추세를 모색함에 따라 인도-동남아 지역은 지속적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2018년 1/4 기준 투자금액 26억 달러, 투자 건수 170건의 투자실적을 발표해 2017년 4분기에 172건의 투자 건수 기록 이후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을 보였다.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인도와

동남아 현지 기술분야에 2017년 한 해 동안 투자자들은 큰 관심을 보였으며, 2016년에 65억 달러에 불과했던 투자 규모도 2017년에는 18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2015년 이후, 인도는 동남아 전체 VC&PE 시장에서 투자금액과 투자 건수 기준에서 각각 56% 와 7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인도 & 동남아시아 VC&PE 투자현황(2015~2018 Q1)



그 다음으로 싱가포르가 투자금액 기준 33%, 투자 건수 기준 10%를 차지했고, 인도네시아가 투자금액 기준 7% 및 투자건수 기준 7%를 차지했다.

2018년 VC&PE에서는 인도 및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혁신기술이 어떻게 금융, 교육, 의료 및 소매와 같은 핵심 성장 부문을 재편할 것인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업들이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향후 몇 년 동안 새로운 투자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최근에는 전자상거래(E-commerce), 핀테크, 의료/의약 분야 기술(Med tech and Pharma-tech), 인공지능(AI) 기술 등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전자상거래(E-commerce)

인도와 동남아시아는 스마트 폰 사용률 증가와 함께 인프라가 개선되었으며, 지불 시스템 디지털화에 힘입어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전기가 마련되었다. 전자상거래 분야는 2017년 37억 달러 규모, 88건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2015년 이후 인도와 동남아시아 전체 VC&PE 투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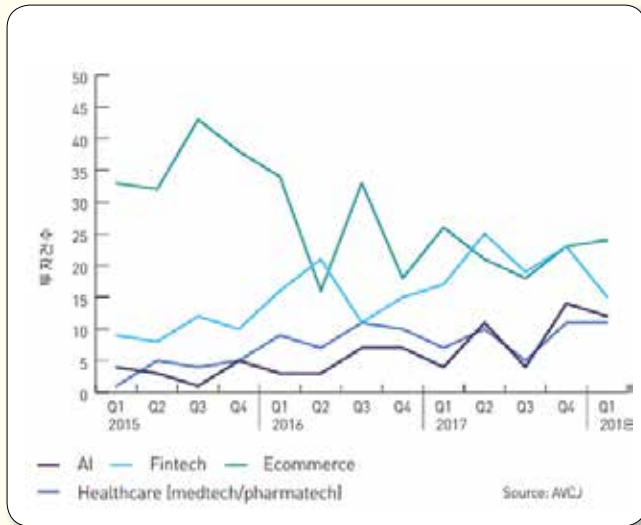
투자 건수, 투자금액 기준 각각 16%, 25%를 차지했다.

인도는 2015년 이후 인도와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분야 투자에서 72%를 차지, 가장 많은 투자를 받은 나라이며, 인도에 본사를 둔 Flipkart는 2017년 Softbank로부터 25억 달러를 유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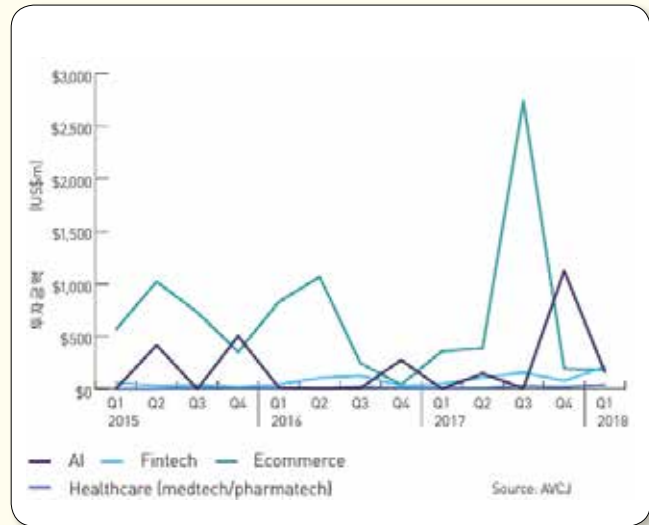
인도 다음으로 인도네시아가 2015년 이후 투자 건수, 투자금액 기준 각각 12%, 3%를 기록했으며, 싱가포르는 투자 건수 및 투자금액 기준 각각 5%, 2%를 차지했다. 전자상거래 산업의 영향으로 동남아시아는 인터넷 사용인구가 약 2억 6천만 명에 달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그 수치가 증가하는 지역이 되었으며, 테마섹과 구글 조사에 의하면 이 인구는 2020년 4억 8천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을 살펴보면, 말레이시아에서는 전자상거래 포털 iPrice가 2016년 series A로 400만 달러를, 베트남에서는 2017년 인터넷쇼핑몰 Leflair가 100만 달러를 유치했다. 태국에서는 전자상거래 전문기업인 aCommerce가 2017년 series B로 6,500만 달

인도 & 동남아시아 VC&PE 투자건수



인도 & 동남아시아 VC&PE 투자금액



러를 유치했다.

핀테크(Fintech)

핀테크 투자는 지난 3년간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7년 총 3.95억 달러 규모의 84건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투자 건수 및 투자금액 기준 2016년 대비 각각 33%, 27% 증가한 수치이다. 2015년 이후 절반 이상의 투자가 인도(58%)에 집중되었으며, 싱가포르(17%)와 인도네시아(9%)가 그 뒤를 이었다.

인도에 기반을 둔 디지털 대출 플랫폼 CapitalFloat이 2017년 series C 투자로 4,500만 달러를 유치한 바 있다.

싱가포르 금융당국은 핀테크 개발, 특히 AI와 데이터 분석 분야에 2,100만 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온라인 개인 금융 비교 포털 Moneysmart는 2017년에 1,000만 달러를 유치하였고, 같은 해 인도네시아 온라인 소비자 대출 서비스인 UangTeman은 series A 투자로 1,200만 달러를 유치했다.

헬스케어(의학/의약 기술)

의료 산업(의료/의약) 분야의 경우 2017년에 단 33건의 거래를 통해 비교적 소규모인 5,900만 달러가 투자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고령화와 급속한 도시화, 가처분소득 증가에 따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의료기술을 통한 예방치료, 초기 진단, 비침습적 시술 등에 있어 발전 가능성을 높였다.

2015년 이후 의료산업부문 투자에서 인도가 95%를 차지했고, 나머지 5%는 싱가포르와 베트남에 집중됐다. 2018년 인도 정부는 의료기기 기준을 포함한 규제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인도에 본사를 둔 CureFit은 2017년 4월 Trifecta Capital Advisors와 Prathithi Investment Trust로부터 320만 달러를 유치했다. 싱가포르에서는 가정 의료서비스를 위한 온라인 매칭 플랫폼 Homage가 2017년 3월 500Startups, Golden Gate Ventures, SeedPlus로부터 120만 달러를 유치했다.

인공 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AI는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들을 통해 엄청난 잠재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2015년 이후 인도와 동남아시아 VC&PE 투자에서 4%를 차지했다. 인도(AI 투자거래의 96% 차지)에서는 Ola가 Tencent와 Softbank로부터 11억 달러를 유치하였으며, Malaysia Debt Ventures는 향후 20년간 AI 등 신기술 개발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기 위해 2017년도 세 번째 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한편, AI는 법률 및 규제적 관점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문제, AI가 내린 의사 결정에 대한 책임, 윤리적 문제와 지적 재산의 소유권 문제 등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올해 3월 미국 애리조나 주에서 발생한 무인 자율 주행 차, 우버의 대형사고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외국투자 현황

인도와 동남아 시장에서는 로컬펀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2015년 이후 인도 투자자가 전체투자의 40% 차지, 동남아 투자자는 20% 차지) 외국투자기관 역시 꾸준한 진출 중이며, 미국 투자자가 전체투자의 25%를 차지했고, 일본과 유럽이 그 뒤를 이었다. 외국투자기관들은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한 선제투자 우위를 모색하고 있으며, 단독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해외펀드나 현지 투자자와 협력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2015년 이후 외국투자기관이 단 한 곳뿐이었던 해외펀드는 4분의 1도 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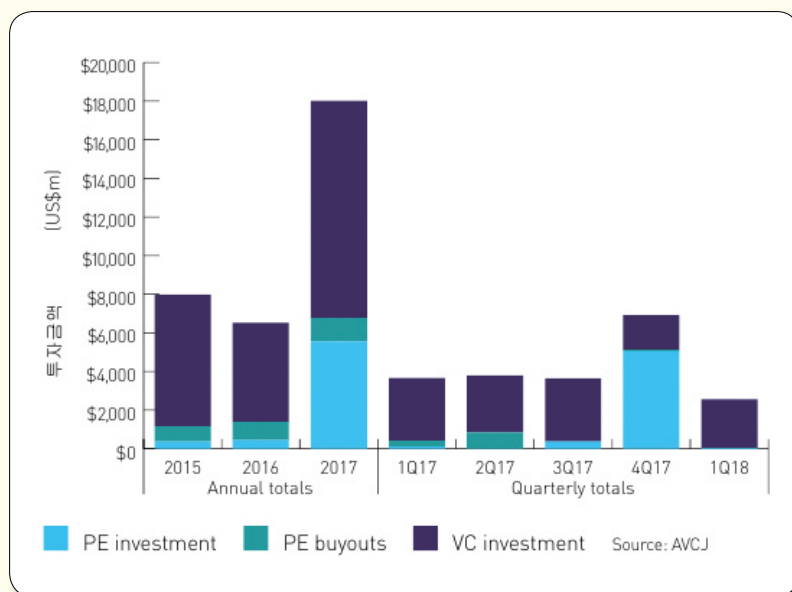
전략적 투자자 간 경쟁도 더욱 두드러졌다. 기술혁신 투자를 통한 다변화와 빠른 성장으로 경쟁자들을 앞서나가고자 소프트뱅크, 구글, 알리바바, Cisco와 같은 곳은 자체적으로 VC를 만들었다. 다른 SI들은 위험을 분산시키고, 더

넓은 자본 풀(Pool)에 접근하기 위해 금융 투자자들과 제휴하고 있다. 2017년 알리바바는 Paytm에 SAIF Partners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2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해당 회사는 인도 전자상거래 시장에 공식적으로 진입했다.

진화하는 생태계

2017년 인도와 동남아시아 시장 기술력이 VC에 대한 투자 붐을 일으키면서 투자자들이 해당 시장의 엄청난 잠재력을 인정한 것이 입증되었다. 많은 투자자가 선제투자에 참여하려 하면서 VC 투자는 스타트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더 많은 기업이 중기 또는 후기 자금 확보에 필요한 지속적 성과와 시장진출 달성을 증명함에 따라, PE 투자 또한 2018년 이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1~2년 이내 성장 단계에 도달할 경우, 이 시장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투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 동남아시아 VC & PE 유형별 투자현황



이달의 VC人 HB인베스트먼트 안신영 대표

우리 회사의 심사역들이
보다 신나게 뛰어다니면서
투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다면 회사의 실적
도 자연스레 좋아질 것이고
3~5년 후면 우리도 탑티어
수준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Q HB인베스트먼트로 새롭게 거처를 옮기신 안신영 대표님을 「이달의 VC인 Zoom-In」 코너로 만났습니다. VC 디스커버리 독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5월부터 HB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이사 직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만, 지난 4월부터 이미 여기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이곳의 새로운 업무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달 정도가 지나니까 비로소 교통정리가 좀 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기분입니다. 제가 회사에, 회사가 저

에게 서로 적응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면서요. 그러다 보니 영 정신이 없는 통에 인사가 늦어졌습니다. 우리 VC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의 월간지의 구독자 분들께 이번 기회에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으니 제가 감사하네요.

Q 그래도 기존에 하시던 업무나 계시던 환경이 이전과 확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근 두 달 만에 새로운 곳에서 빠르게 적응하신 것으로 보이십니다.

지난 두 달을 너무나 바쁘게 보냈습니다. 제가 VC 업계 경력만 15년이 넘음에도 심사와는 다른 이제는 다른 차원의 일을 그려보기 시작하는 것에 대해 부담이 전혀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머릿속도 복잡했구요. 주변에 인사 다녀야할 곳도 많고 잡히는 약속도 어찌나 많은지 피곤함은 이루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빡빡한 두 달을 채우고 나니 이제는 여유가 생기고 또 본격적으로 재미가 붙기 시작합니다. 일선에서 투자만 알던 제가 이렇게 경영진으로 옮겨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듭니다. 아직까지는. (웃음)

그래도 우리 VC 업계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 좋아하고 유쾌하듯이 저도 본래 성격이 낙천적이고 또 항상 재미를 찾아가며 일하는 스타일

HB인베스트먼트 사무실 입구



이라서요. 대표직으로 온 후에 다양한 분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 여러모로 행운이라고 생각하며 지냅니다.

Q 네, 듣고 보니 투자 심사역으로서 현직에 계시다가 VC 회사의 대표직을 맡기로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HB인베스트먼트의 대표 자리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주위에서 대표직을 한 번 해보라는 추천도 있었고, 실제로 HB에서 제안이 몇 번 오게 되니 진지하게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정중히 거절 의사를 밝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투자 심사업에 대한 애정이 컸고 아직까지는 투자 마인드가 크다고 여겼기 때문에, 대표이사로서의 제 역할로 바뀌는 데에 대한 우려가 먼저 앞섰던 것 같아요. 게다가 외부에서 보는 HB는 다른 VC 회사들에 비해 많이 튀지 않았기에 회사에 대한 저의 이해도가 좀 낮았고, 또 회사의 분위기라든지 실적과 같은 내부 환경에 대한 확신도 없었기에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의 상황과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생각보다 너무 좋은 겁니다. HB의 모회사를 비롯한 구조, 경영 실적 등 기본적인 바탕이 굉장히 탄탄하고 좋은 창업투자회사란 확신이 생겼습니다. 펀드 수익률이나 결성율도 꽤 높고요, 투자 잘해서 성과 기다리고 있는 심사역들도 꽤 되더군요. 제가 이런 좋은 밑거름을 바탕으로 한 번 “내 그림”을 그려 나가볼까 싶은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제 보니 사실 판 걱정 말고 여기서는 저만 잘하면 되는 거였어요. (웃음)

Q 젊고 혁신적인 대표님 영입에 다들 두 손 들고 환영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게다가 업계 내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터라 첫 여성 대표로서 많이 주목받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근 5~6년 사이에 VC 업계에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심사역 1세대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출생한 연령대로, 2000년대 초반에 VC 업계에 대거 진출해 한동안 주류였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30대 중·후반인 1980년대생 심사역들이 업계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게다가 그들이 잘 알고 있고 또 선호하는 업종인 게임, O2O 등이 요새 각광받고 있으니 이 친구들이 네트워크 면에서나 정보력 면에서도 우리 세대에 비해서 심사측면에서 훨씬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 이내에는 이제 제 세대의 심사역들이 대부분 대표이사와 같은 경영진단으로 빠지면서 젊은 대표들이 점차 많아질 것으로 보여요. 물론 제가 잘난 점이 하나도 없지는 않겠지만....(웃음) 무엇보다도 우리 VC 업계에 혁신과 변화의 바람에 따른 세대교체 흐름에 제가 편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여성 대표”라는 표현은 저는 개인적으로 불필요한 수식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 아무래도 VC 업계에 여성 비율이 낮다 보니 그러한 꼬리표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과거에도 사실 제가 투자 실적을 많이 거두고 회사에서도 인정해주신 덕분에 “최연소” 대표 펀드매니저가 된 적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 업계에서는 일명 대편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이런 타이틀을 얻는다

는 것은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는 첫 “여성” 대표 펀드 매니저라고 집중 소개되어서 많이 아쉬웠죠. 능력과 트랙 레코드를 통해 얻은 결실일 뿐 성별과는 상관없지 않나요? 남성 대표 펀드매니저라고 하면 어딘가 어색한 것처럼 말이죠. 이제는 업계에 여성 심사역도 꽤 많이 늘었고 조만간 그런 표현자체를 없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이번에는 대표님께서 VC 업계에 입성하신 계기와, 또 주니어 시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여쭙보겠습니다. 독자들이 대표님께서 어떤 막내였을까 궁금해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통계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에는 바로 공인회계사가 되었으니 사실 벤처캐피탈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투자 업무에 대해서는 거의 백지 상태에 가까웠죠. 세상을 바꿀만한 기업을 키워내겠다는 거창한 꿈을 갖고 시작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셨으면 어쨌죠? (웃음)

회계사 수습 직후에 남편과 함께 미국 유학을 다녀왔는데, 막상 한국에 돌아와 보니 그때는 회계사 수가 천 단위로 늘어났던 해인지라 회계법인 취직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돌고 돌아 대성그룹에서 회계사를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고 마침 입사 후 첫 발령받은 계열사가 대성창업투자였습니다. 그렇게 벤처캐피탈과의 인연은 우연인 듯 필연인 듯 시작이 되었네요.

돌이켜보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천방지축 막내였겠죠. (웃음) 다행히 대성그룹에서 창투자

를 인수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1년 정도는 업무를 파악하는 시간을 갖게 했어요. 그래서 기존 피투자기업 포트폴리오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사람들도 만나면서 VC 업계에 소프 트랜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대성이 펀드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섰습니다. 초심자의 행운이었을까요? 제가 초반에 참여했던 딜들에서 상장기업도 나오는 등 대박이 나고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따로 있어요. 자동차 헤드라이트 램프 제조업체였던 K사가 결국 폐업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장님이 투자자들을 불러서 자금은 돌려줄 수 없게 되었으니 재고로 쌓인 헤드라이트를 챙겨주셨어요. 저는 그걸 다 들고 와서 창고를 하나 대여한 뒤 수년간에 걸쳐 판매했죠. 그 금액을 한푼 두푼 모아 출자자 분들께도 끝까지 나눠드렸더니 다행히 긍정적으로 봐주시더라고요. 아무튼 사회 초년생이었던 저에게 책임감이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회사를 잘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느낄 수 있었던 계기라 꽤 특별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Q 제품도 우수하고 대표의 역량도 좋지만 반드시 그것이 투자 실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나 봅니다. 그렇다면 대표님의 투자 관점에서 보시기에는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제가 특정 기술에 대한 베이스가 없다 보니 쉽게 말해서 돈 되는 것 하는 회사는 다 좋다고 봅니다. (웃음) 투자 딜을 볼 때도 어떤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제조업, 바이오, B2C, 컨



주니어시절 안신영 대표

텐츠 등 다양한 회사를 검토하죠. 회사마다 투자 관점, 투자 포인트가 다 다르게 적용이 돼요. 어떤 곳은 사장님 역량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연구진의 기술력, 또 어떤 곳은 영업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좋은 회사는 일단 IR을 들어보면 압니다. 포장 잘 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말을 잘 하는 것과는 달리 잘 될 성싶은 대표들은 눈빛에 열정이 있고 비전이 보여요. 그런 창업팀을 만나면 제 가슴이 다 두근거려요. 그래서 제 기술적인 지식과 이해도 수준과 상관없이 투자를 검토할 때는 구성하고 있는 사람을 메인으로 보고 또 회사 안팎의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 투자를 집행한 회사가 잘 되는 것을 보면 동반자로서 그 누구보다 기분이 좋죠. 투자 실적이나 성과급을 받는 것보다도 약 소했던 기업이 저와 함께 승승장구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뿌듯합니다. 그리고 이미 성장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회사 운영에 대한 조언이 필요할 때면 아직도 저를 제일 먼저 찾아 주시는 것이 감사하고요. 투자자와 기업을 떠나 인간 대 인간으로 끈끈해 지는 것이지요.

제가 통계학과를 나와서인지 투자 전략을 세울 때도 통계적인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이 산업의 회사는 성장하는 확률이 50%가 되지만 벌어들인 수익이 2배, 또는 이 분야는 성장 확률이 다소 낮지만 대박나면 100배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고 이에 해당되는 기업들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킵니다. 물론 다들 그러시겠지만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지요.

Q 네, 오늘 바쁜 시간을 할애하시고 좋은 말씀 많이 나누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의 향후 계획과 포부를 듣고 오늘의 인터뷰를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비교적 큰 규모의 VC 두 곳에서 15년 이상 다양한 일을 해보고 배웠습니다.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심사역들이 일하기에 편하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심사역으로서의 애환이나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이 있어요.

이를테면 펀드 운영하는데 큰 그림을 두고 세부 전략을 제가 보여주는 것이지요. 커뮤니케이션은 자유롭게 하되, 초기투자의 비중은 얼마나 될 것인지 등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면 심사역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좋은 투자 딜을 발굴해오고 이어 투자심의위원회까지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력이나 네트워크도 대표자의 역량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소위 영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심사역들이 보다 신나게 뛰어다니면서 투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다면 회사의 실적도 자연스레 좋아질 것이고 3~5년 후면 우리도 탐티어 수준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심사역들이 오래 다니고 싶은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시스템을 혁신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고 또 회사도 저로 인해 미미하게나마 변화의 바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8. 4. 30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주요 내용

- 가. 창업자·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내국법인에 대해서도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및 배당소득 비과세를 적용함(안 제13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조 제4항).
- 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벤처기업출자 유한회사·내국법인 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 지분을 매입하는 구주 거래에 대해서도 주식양도차익

- 비과세를 적용함(안 제13조 제1항 제8호 신설).
- 다.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법인세 공제비율을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함(안 제13조의2 제1항).
- 라. 내국법인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의 지분을 매입하는 구주 거래를 추가함(안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신설).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1~6. (생략)	1~6. (현행과 같음)
<u><신설></u>	7.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또는 코넥스 상장기업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u><신설></u>	8.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 유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기금운용법인 등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양수한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코넥스 상장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현행	개정안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 유한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 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 전문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4. (생략) ③ (생략) ④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 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 기업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생략)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신설〉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출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2. (생략) ③~⑤ (생략)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 벤처기업출자 유한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기금운용법인 등 또는 내국법인..... 1.~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벤처기업출자 유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내국법인이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100분의 10 1. 2. (현행과 같음) 3.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양수한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 전문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 1. 2. (현행과 같음) ③~⑤ (현행과 같음)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행사가액 조정절차 이행의 소 가부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리픽싱(refixing)조항'을 둔 경우,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을 거절하는 발행회사를 상대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이종건
법무법인 이후 대표변호사

1. 판결의 쟁점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40858 판결 신주인수권행사가액조정 등
– 신주인수권만의 양도가 가능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발행조건으로 주식의 시가하락 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하향조정하는 이른바 ‘리픽싱(refixing)조항’을 둔 경우, 신주인수권자가 주식의 시가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을 거절하는 발행회사를 상대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그 이행의 소는 신주인수권의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판결의 요지

– 신주인수권만의 양도가 가능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발행회사가 신주인수권의 발행조건으로 주식의 시가하락 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하향조정하는 이른바 ‘리픽싱(refixing)조항’을 둔 경우, 주식의 시가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발행회사가 그 조정을 거절하고 있다면, 신주인수권자는 발행회사를 상대로 조정사유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신주인수권자가 소송과정에서 리픽싱 조항에 따른 새로운 조정사유의 발생으로 다시 조정될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적용을 받겠다는 분명한 의사표

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이행의 소에 대하여 과거의 법률관계라는 이유로 권리보호의 이익을 부정할 수는 없다.

– 그리고 위와 같은 발행조건에 리픽싱 조항에서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신주인수권자가 소로써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와 발행회사가 자발적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하는 경우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주식의 시가하락이 있는 경우 리픽싱 조항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이 선행되어야만 신주인수권자로서는 신주인수권의 행사 또는 양도 등 자신의 권리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반면 위와 같은 이행의 소에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전제되어야 한다면 이는 본래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 내에서 신주인수권의 행사 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신주인수권의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발행회사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허용되며 또한 신주인수권의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주주간 합의서의 활용



주주간 합의서의 활용의 필요성과 쟁점¹⁾

1. 국내 상법 체계에서 주주간 합의서(SHA)의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결론 : 가능

가. 주주간 합의서의 기본 내용

- (i) 회사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 (ii) 회사의 지배주주 또는 이해관계인이 준수하여야 할 의무, (iii) 회사와 지배주주 또는 이해관계인이 공통으로 준수하여야 할 의무 등^{2) 3)}

- 위 규정들을 대별하여 보면, (i)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⁴⁾, (ii) 지분의 양도제한과 관련한 사항⁵⁾, (iii) 해지 및 해지의 효과에 관한 사항⁶⁾, (iv) 경영금지, 자금조달, 배당정책 등 기타 부수적 사항 등

나. 주주간 합의서의 필요성

- 벤처 투자 계약서는 단순한 지분인수 조건이 담긴 계약서(SPA) 외에 기업가치 제고, 위험관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일정 수준의 경영관여조항 포함

- 위 경영관여조항은 이해관계인과 SHA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회사 사이에 특약 형태로 나타나기도 함

- 따라서 벤처투자계약서는 【SPA + [특약(회사) + SHA(이해관계인)]】 형태 일반화

- 【SPA + [특약(회사) + SHA(이해관계인)]】 형태의 하나의 계약서가 통용되는 배경에는 []로 표기된 회사의 의무와 이해관계인의 의무가 중첩되는 영역이

발생하고 이를 간이하게 하나의 계약서로 표현한다는 장점 외에 주주간 합의서의 집행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

- 다만 이러한 형태의 계약서는 투자 Round가 반복되어 갈 때 다른 Round 투자자 사이에 동일 취지의 규정이 기재됨으로써 우선순위 등에 충돌이 발생할 우려와 회사 및 이해관계인 입장에서 의무의 충돌 발생

- 현재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충돌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Round가 반복되어 가는 경우 별도의 SHA를 시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

- 권고적으로는 시장 사적 자치의 영역이고 장단점을 가진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장

에서 그 필요성에 의하여 발전하여 나갈 것으로 전망(과거 SHA에 대하여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다가 현재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점 등)

다. 법적 도입

- 이미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과 같이 그 도입은 SHA는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고 개별 조항이 상법에 충돌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형태의 약정 도입 자체는 법률 위반의 문제는 아니며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성이 있음

- 주주간 합의서는 기본적으로 회사법의 다수결의 원칙에 대한 수정의 의미를 내포한 조항을 담고 있음; 이는 주주(투자자)에게 상법이 해당 주식에 부여한 권리 외에 부가적 권리를 부여하는 형태 + 이를 위하여 이해관계인 주주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됨⁷⁾

1) 주주간 합의서(SHA)의 개별 조항의 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 후술

2) 위 ① 내지 ③에 관련된 사항은 ① 투자금의 용도 및 제한, ② 기술의 이전, 양도, 겸업 및 신회사 설립 제한, ③ 임원의 지명, ④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및 협의권, ⑤ 보고 및 자료 제출, ⑥ 증자 참여의 우선권에 관한 사항, ⑦ 기업공개 및 M&A에 관한 사항,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⑨ 주주총회 및 이사회 개최 요구, ⑩ 회계 및 업무감사, ⑪ 시정조치, ⑫ 투자자의 주식 처분, ⑬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⑭ 투자자의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및 공동매도권(Tag-along), ⑮ 주식매수청구권, ⑯ 계약의 해지 및 해제와 위약금 및 손해배상 청구, ⑰ 이해관계인의 책임, ⑱ 특약 등

3) 이를 회사의 의무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무만으로 할 수도 있고, 양자의 공통된 의무 형태로 그 성질에 따라 구분되어 기재

4) ① 주주총회와 관련한 사항(주주총회 개최지, 소집횟수, 통지기간 및 방법, 정족수, 특별결의사항 등), ② 이사회 구성과 관련한 사항(이사총수, 이사 선임권, 정족수, 통지기간 및 방법,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 약정, 이사회 특별결의사항 등), ③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 *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소수주주들의 거부권(veto power)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 및 이사회의 특별결의사항이 많이 협의되며, 특별결의사항과 관련한 교착상태(dead lock)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규정을 두고 있음

5) ① 일정 기간 상대방의 동기가 없이는 지분양도가 제한된다는 내용(lock-up), ②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③ 우선청약권(right of first offer), ④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 right), ⑤ 동반매각청구권(drag-along right), ⑥ 주식매수청구권(Put Option)

6) ① 주주간 계약의 해지 사유(일반 당사자의 지분율이 일정률 이하인 경우, 상대방 의무 위반의 경우 등), ② 해지의 효과(위약금, 할인된 가격의 콜옵션, 할증된 가격의 풋옵션 등)

7) 이를 통해 회사와 이해관계인은 자금유치면에서 장점을 갖게 됨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운영 현황

투자 협력

벤처투자 사랑방

5월 벤처투자 사랑방 개최

본회는 지난 24일 '5월 벤처투자 사랑방(마트)'을 개최하였다. 이번 사랑방에는 미디어서울 등 중소·벤처기업 19개사와 포스코기술투자 등 벤처캐피탈 4개사가 참석하여 기업의 투자유치, 자금조달에 대한 1:1 대면 멘토링을 진행하였다.

올해부터는 지방권 주요 창업지원 기관과 연계를 통해 지방 소재의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지

원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며, 한국엔젤투자협회에서 진행하는 엔젤투자마트와 통합하여 신청을 받고 있다. 본회는 중소·벤처기업에 실질적 자금조달 전략수립과 사업화 촉진을 지원하며 본 프로그램을 통해 벤처투자유치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벤처투자 사랑방은 아래 주소를 통해 참여 신청할 수 있다.

벤처투자 사랑방(마트) 참여 신청 링크 : <http://cafe.kvca.or.kr>



벤처투자 로드쇼

중부권 벤처투자 로드쇼 개최

본회는 5월 16일(수) 대전 한밭대학교 국제교류관(S0동)에서 '2018 중부권* 벤처투자 로드쇼'를 개최했다.

*중부권 : 강원 / 대전세종충남 / 충북 지역

벤처투자로드쇼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벤처캐피탈로 인해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벤처투자 활성화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중부권 벤처투자 로드쇼의 주요 내용으로는 벤처캐피탈의 이해를 위해 '스타트업 성공을 위한 벤처캐피탈 투자 및 M&A 전략'을 주제로 진행된 SV인베스트먼트 정주완 팀장의 투자유치 세미나, 중부권 소재 15개 기업이 실리콘밸리 방식으로 각 3분씩 투자기관을 상대로 진



행하는 투자유치 설명회(IR), 중부권 유망 기업 35개사와 25개 투자기관 간 1대1 투자 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본회는 향후 호남권(8월), 영남권(10월) 등으로 행사를 확대하고, 지방에서 개최되는 투자지원 프로그램과 한국엔젤투자협회에서 진행하는 지방 엔젤투자 활성화 프로그램 등에 연계하여 올해 총 20회의 지방 벤처·엔젤 투자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콘텐츠 투자 패스트트랙

투자유치 기본 교육과정 개최

본회는 지난 4월, 콘텐츠 산업 육성 및 콘텐츠 기업의 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서울산업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5월 10일, 15일 양 일에 걸쳐 콘텐츠 기업 대상 투자유치 기본교육을 개최하였다. 10일 기초교육, 15일 심화 교육으로 개최된 이 과정은 각 4개의 강의로 진행되었고 벤처캐피탈의 이해부

터 콘텐츠 기업 투자사례, 벤처캐피탈 세무회계, M&A와 IPO에 이르기까지 벤처캐피탈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전반적으로 전달하는 시간이 되었다. 참가자들은 초기 콘텐츠 기업들로 애니메이션, 웹툰, 게임, MCN 등 관련 제작기업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 중 40여개의 선발된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멘토링 등을 순차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투자유치 기초과정(5/10,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시간	세부 내용	강사
10:30~12:00 (90')	투자기관의 이해와 투자사례	센트럴투자파트너스 박영찬 이사
13:00~14:30 (90')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세무회계 및 재무관리	삼화회계법인 박중대 회계사
14:30~16:00 (90')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와이앤아처 안정란 디렉터
16:00~17:30 (90')	콘텐츠 스타트업 자금조달 전략	인라이트벤처스 유동기 상무

투자유치 심화과정(5/15,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시간	세부 내용	강사
10:30~12:00 (90')	투자계약서 작성 실무	법무법인 이후 이종건 대표변호사
13:00~14:30 (90')	콘텐츠 기업 투자사례 분석1	지비보스톤창업투자 정무열 전무
14:30~16:00 (90')	콘텐츠 기업 투자사례 분석2	케이티네트워크 이승호 상무
16:00~17:30 (90')	M&A 및 IPO OVERVIEW	홍지웅 회계사

M&A

코스닥 기업 M&A 컨퍼런스 개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이용성)와 코스닥협회(회장 김재철)가 주관한 '코스닥 기업 M&A 컨퍼런스'가 지난 5월 4일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M&A 활성화를 통한 코스닥 기업 성장동력 발굴」 및 「지속성장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본 행사는 M&A 희망 코스닥 기업, 자문기관 추천기업, M&A 거래정보망 등록기업 등 약 13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M&A 활성화지원사업 소개를 시작으로 상장사 M&A 법률/세제 특강, 코스닥 기업 M&A 성공사례 발표, M&A 희망 매도기업 IR, 1:1 매칭상담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M&A 활성화지원사업 소개에서는 M&A 거래정보망 현황 및 회원가입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진행되었으며, M&A 지원센터로 참여하고 있는 삼일회계법인 정복석 파트너가 상장사 M&A 법률/세제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였다. 이어서 코스닥상장사인 (주)제이스텍의 정재송 대표가 M&A 성공사례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M&A 매도희망 기업 5개사가 차례로 나

와 보유기술 및 사업에 대해 간략한 소개의 시간을 가졌다.

IR 이후 진행된 1:1 매칭상담에서는 총 21개사(매도 11개사, 매수 10개사)가 참여하여 M&A, 투자유치 등 기업매각 전반에 대한 폭넓은 정보교환이 이루어졌으며, 사전 매칭상담과 현장상담을 병행하여 진행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기업 간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몇몇 참가기업의 경우, 신사업 추진, 동종업종 간 시너지 확대 등을 목적으로 본격적인 M&A 추진이 기대되고 있다.

협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M&A 추진 기업을 대상으로 후속 상담, 자문 서비스 및 기업진단비용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참가기업 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M&A 진행 상황 모니터링 및 매칭데이, 세미나, 컨퍼런스 등 관련 행사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행사참여 및 사업안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A 거래정보망 및 협회 M&A 지원센터(02-2156-2128, 02-2156-212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KVCA 소식

2018년도 벤처캐피탈 사장단 연찬회

본회는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제주도에서 2박 3일간의 2018년도 벤처캐피탈 사장단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협회 회원사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벤처투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거래소 등 LP와 유관기관 담당자 등 총 9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튿날인 17일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석중훈 중소벤처기업부 실장,

주형철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이사, 이민규 아주대 교수를 초청하여 특강을 실시하였다. 강연 이후에는 산업은행의 벤처투자 플랫폼인 KDB 넥스트라운드 소개와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Preqin의 글로벌 VC&PE 트렌드리뷰가 이어졌다.

연찬회는 회원사간 업계 현안과 주요 관심사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서, 매년 5월 개최하고 있다.



신규 회원사 방문(한컴인베스트먼트)

본회는 5월 11일 한컴인베스트먼트를 방문하여 회원패를 전달하고 협회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해 간단한 미팅을 진행하였다. 지난 4월 창투사로 등록한 한컴인베스트먼트는 한컴그룹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4차 산업 혁명의 유망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투자하고 경영 노하우 및 인적 네트워크를 공유하며 체계적인 투자활동을 벌일 전망이다.



협회장 동정

부총리 주재 팁스타운 간담회 참석

지난 5월 8일, 정부 출범 1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한 창업벤처 지원 정책 추진 성과공유 간담회에 본회 이용성 회장이 참석하였다. 이 간담회는 작년 김동연 부총리의 8월 취임 후 첫 번째 혁신성장 방문지로 낙점되었던 팁스타운에서 열렸으며, 부총리 뿐 아니라 중기부, 산업부, 금융위 등의 관계자들과 청년 창업가 등 총 20여 명이 모여 지난 1년간의 정책 추진 경과 및 성과를 공유하고 창업 애로사항 등에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경제 주최 Seoul Forum 2018 참석

본회 이용성 회장은 5월 9일 서울경제가 주최하는 포럼에 참석하고 김동연 부총리, 정부 부처의 기관장, 금융지주사 회장 등 산업계 단체장들과 네트워킹 하는 자리를 가졌다. 서울경제포럼은 매년 5월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는 미래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확보 및 4차 산업혁명 주도를 위한 혁신제안을 주제로 전문가들의 세미나를 제공한 바 있다.

중소기업주간 선포식 및 중소기업정책협의회 참석

본회 이용성 회장은 5월 14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여 중소기업 주간 선포식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식을 시작으로,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 주재로 열린 협의회에서 여러 벤처관련 협단체장들과 현안사항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이번 회의는 중기부와 기관들의 소통 채널이 될 중소기업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갖는 첫 번째 회의였다.



회원사 소식

신규가입

회사명	회사명	대표	연락처	주소
정회원	이앤벤처파트너스	노장수	(02)569-3456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6 역삼아이타워 16층
	솔론인베스트	김형근	(02)538-558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22 (6층 604호)
특별회원	신용보증기금	황 록	(053)430-4455	대구 동구 첨단로 7 신용보증기금

대표이사 변경

회사명	변경전	변경후
네오플렉스	이상하	이상하, 최완석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먼트	최영찬	최영찬, 고병철
에이치비인베스트먼트	김형달, 소병하	안신영, 김형달
소프트뱅크벤처스	문규학	이준표

회사명 변경

변경전	변경후
데일리벤처투자	데일리파트너스

사무실 이전

회사명	변경전	변경후
대경창업투자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4길 12, 6층 (대치동, 마루빌딩)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22, 701호 (삼성동, 한국도심공항터미널)

◎ 네오플렉스

네오플렉스 IPO를 앞두고 최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최완석 상무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결의하였다. 최 신입대표는 1962년생으로 2015년부터 네오플렉스에 재직했으며 그는 자금관리이사(CFO)로서 조합관리부문을 대표할 예정이다. 최 대표는 관리부문을, 이상하 기존 대표이사는 조합 운용 부문을 각각 책임지는 각자대표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가 투자했던 스타트업들이 IPO를 추진하고 있다. ABL바이오, 더파머스, 만나CEA, 셀리드 등 DSC

와 함께 성장해온 초기기업 포트폴리오로 올해부터 상장 등 투자성고가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수림창업투자

수림창업투자의 '수림여성창조기업벤처투자조합'은 운용 1년여만에 의무투자비율을 달성하고, 펀드결성 2년여만에 투자여력을 모두 소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퍼스트바이오, 수젠텍, 류라캠 등 피투자업체의 상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회수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수림창업투자는 올해 다시 펀드레이징에 주력하며 조선업, 수산 등 특수목적 펀드에 높은 비중을 낮추는 등 투자재원 다변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SBI인베스트먼트

SBI인베스트먼트는 5월초 야놀자에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매입하는 형태로 100억 원을 투자했다. 지난 2016년에도 시리즈 B단계에서 60억 원을 RCPS로 투자한 적이 있다. 당시 4,000억 원 대였던 야놀자 지분 100%의 가치는 이번 단계에서 6,000억원대 중반 수준까지 커졌다. SBI인베스트먼트는 이르면 내년 야놀자의 IPO를 엑시트 수단으로 삼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 SV인베스트먼트

SV인베스트먼트는 지난 3월 22일 상장예심을 청구해 약 2달 동안의 심사 끝에 통과하였다. SV인베스트먼트는 이번 상장

을 통해 390만주를 공모할 예정이며, 조달한 공모자금 대부분은 미국 진출 등 글로벌 투자 확대에 활용할 계획으로 밝힌 바 있다. SV의 상장 예정주식 수는 2,661만 7,000주다.

◎ 아이디벤처스

아이디벤처스가 인터렉추얼디스커버리에 아이디비홀딩스로 대주주 변경을 완료 하였다. ICT 분야 미디어사인 전자신문과 중견기업 (주)디스플레이테크가 대주주로 있는 아이디비홀딩스가 전체 주식의 70%를 보유하게 되었다. 대주주 변경 후에도 IP 금융에 특화된 정체성을 강화하고, 전자신문, 디스플레이테크 등과 협력해 스타트업 발굴·투자부터 스케일업까지 기술에 중점을 둔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 원익투자파트너스

원익투자파트너스의 최대주주인 원익홀딩스는 원익투자파트너스 지분전량을 지난 2월 싱가포르에 설립한 WONIK HOLDINGS SG PTE 라는 신설법인의 자본금으로 납입하였다. 이로 인해 원익투자파트너스의 최대주주가 WONIK HOLDINGS SG PTE로 변경되며, 원익홀딩스와 원익투자파트너스의 직접적인 지분 관계는 끊어지게 되었다. 공정거래법상 패널티를 피하기 위해 이처럼 해외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후 금융 계열사 지분을 넘기는 것은 일반 지주회사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다.

◎ 인라이트벤처스

인라이트벤처스는 삼성벤처투자로부터 200억원 규모의 CG1호 신기술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 자격을 넘겨 받아 펀드 규약 변경 절차에 돌입하였다. 인라이트벤처스가 현행법상 신기술조합을 운용할 수 없어 펀드의 법적 형태를 창투조합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다. 창투조합의 경우 운용사가 자금을 출자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 따라 인라이트벤처스는 일부 자금을 CG 1호 펀드에 새롭게 투입하게 되었다.

◎ 인터베스트

인터베스트가 창립 이후 처음으로 PEF를 조성하였다. 신한금융투자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역혁신한 인베스트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를 결성하였다. 약정총액은 1,430억 원으로 존속기간은 5년이다. 인터베스트는 공동운용사인 신한금융투자와 220억 원을 출자하였다. LP로 과학기술인공제회, 미래에셋대우, 롯데손해보험 등이 참여하였다.

◎ KB인베스트먼트

KB인베스트먼트는 그룹 계열사인 KB자산운용이 은행과 증권사 PB 고객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한 뒤, 결성한 사모펀드를 LP로 참여하는 재간접 사모펀드 'KB Pre IPO세컨더리 투자조합 2호'를 결성하였다. 결성총액은 50억 원으로 IPO를 앞둔 비상장사에 투자하는 세컨더리 전문 펀드다. 이번 펀드는 지난해 3월 결

성한 'KB Pre IPO 세컨더리 투자조합 1호 (110억 원)'의 후속 펀드다.

◎ K2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K2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가 조성하는 684억규모 세컨더리 펀드 "K2레퍼리오투자조합"에 기관투자자가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250억원, 교직원공제회 150억 원, 과학기술인공제회 100억원 등의 투자를 확보받은 바 있으며 지난 2월 1차 펀드레이징 종료 후 추가 투자를 받아 지난 5월 10일경 최종 클로징하였다.

◎ 카카오벤처스

카카오벤처스는 1호 투자사인 왓차가 앱 출시 2주년을 맞아, 누적 재생시간, 앱 다운로드 등 주요지표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왓차플레이는 디즈니, 소니, HBO, CJ, 쇼박스 등 국내외 공급사와의 계약을 토대로 3만 편에 육박하는 콘텐츠 서비스를 하고 있다.

◎ 캡스톤파트너스

캡스톤파트너스가 송은강 대표 단독체제로 전환하였다. 이는 10년 넘게 파트너였던 최화진 대표가 코나벤처파트너스를 설립하며 독립한데 따른 것이다. 최화진 대표는 보유 중이던 캡스톤파트너스 지분을 재무적 투자자에게 전량 양도하고, 재직 시절 결성을 주도한 '캡스톤 6호 벤처투자조합'과 '4:33 United-캡스톤 청년창업 투자조합'은 코나벤처파트너스 자산으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원 소식

「2018년 제2차 전문인력 전문성 및 직업윤리 강화교육」 개최

본 과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전문인력의 업계 동향 파악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으로, 협회 부설 연수원에서 매년 2~3회 운영 중이다.

이번 2차 교육에서는 기존에 진행했던 벤처캐피탈 업계 동향, 법률

및 제도 강의와 더불어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법률과 유형을 살펴보고 사례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마지막 차수 교육은 오는 12월 4일 개최 예정이다.

• 일자 : 2018년 5월 25일 금요일 (1일 출석) • 장소 : 서초동 VR빌딩 B1 블루룸

내용	강사
벤처캐피탈 투자 동향 및 성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김형수 전무
벤처캐피탈 최근 입법 동향	법무법인 이후 이종건 대표변호사
투자계약서 관련 제도개선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법률 및 사례	

16월 교육 안내

- 교육명 2018년 제25기 벤처캐피탈리스트 전문가 과정(공통/필수)
- 운영 형태 4박 5일 합숙 / 3일 출석
- 일 자 6월 18일(월) ~ 22일(금) / 6월 27일(수) ~ 29일(금)
- 대상자 벤처캐피탈 업계 및 금융 관련 업계 종사자, 일반인 등
- 과정 개요 벤처캐피탈 투자심사 인력 양성 교육



Epilogue

격려와 사랑이 담긴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담습니다.



분주한 마음에 심표 하나 찍어보세요

잠시 멈춰 숨을 고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왠지 들떴던 마음도 가라앉히고, 앞만 보고 달려온 일들도 한 번 되돌아보며 여유를 가져보세요. <VC Discovery>도 분주한 일상 속의 작은 심표가 되고 싶습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VC Discovery 6월호에 대한 후기 및 퀴즈의 정답을 작성해 담당자 newsletter@kvca.or.kr 로 보내주신 분 중 3분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자유게시판

VC 디스커버리를 통해 VC 동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아주 유익합니다. 특히 조합결성 및 회수사항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출자기관들의 공모 계획 및 선정 결과도 정리되어 좋습니다. VC 인터뷰 코너 역시 VC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추후에도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일부 발췌 및 요약)

— 농협은행 신주환 —

독자 참여 퀴즈

Q 국제 금융의 중심 지역 중 하나로 손꼽히며 높은 생활비 특히 살인적인 월세라고 표현할 만큼 높은 주거 임대료로 유명한 곳이다. 아시아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은 물론 세제 혜택도 좋은 편이라 해외 투자자금 유입률이 전 세계 4위를 기록할 만큼 투자율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핀테크 등의 최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기 위해 이 지역으로 진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아시아 최대 IT 전문 전시회가 봄과 가을에 나누어 열리고 있어 협회에서도 지난 달 VC 참관단을 꾸려 방문한 바 있다. 이 곳은 어디일까?

A OO

지난호 정답

M&A

지난호 정답자

신주환(농협), 윤정현(IMM), 최선아(보광)

이달의 VC용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

CVC는 기업 내에 설립되는 벤처캐피탈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는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 원칙 때문에 CVC를 계열사로 둘 수 없다. 반면 해외에서는 미국 구글, 인텔 등 대기업들이 CVC를 설립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운용하거나 다른 펀드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10대 그룹과의 간담회에서 제도적인 제약 때문에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선조적 투자가 어렵다며,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과정에서 CVC와 관련한 지주회사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참고 및 출처 : 한국경제



VC Discovery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벤처캐피탈협회에서는 투자 관련 규제 완화, 회수시장 활성화 등
시장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시장 조성 및 인프라 마련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지난 1990년부터

〈VC Discovery〉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VC Discovery〉는 회원사 및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전화, 팩스,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VC Discovery

정기 구독 신청 문의 및 기고 보내주실 곳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3층

• TEL. ☎ (02)2156-2141 • FAX ☎ (02)2156-2110

• E-mail ☎ newsletter@kvca.or.kr

VC Discovery

KVCA MONTHLY MAGAZINE